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융합 연구

임선아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Correlation about Oral Health Beliefs and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Perception Factor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Sun-A Lim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약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의 융합연구로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동의한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실시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유의성이 3.87점이었고, 구강건강지식 11.9점, 5점척도인 구강건강중요성 1.50점, 구강건강관심 2.36점, 구강건강상태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는 구강건강신념은 구강건강지식($r=0.294$, $p<0.01$)과 구강건강상태($r=0.406$,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의 변화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구강보건교육의 필요하며,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구강건강, 신념, 융합, 인지지각요인, 학생

Abstract A convergence study of oral health beliefs and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knowledge factors of some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on 216 students agreed from April 1 to June 14, 2019.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est. The oral health beliefs were 3.87 and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measured by 5-point, oral health interest and oral health status are 11.9, 1.50, 2.36, 2.67 respectively. The need for constant oral health education so that changes in oral health beliefs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perception ability can be improved.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Oral health, Belief, Convergence, Awareness perception factors, Student

1.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 증가되면서 건강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매우 밀접하며 건강

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1].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생활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강진료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구강병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활동에 제한이 되어진다면 정신적·육체적 고통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won University 2019.

*Corresponding Author : Sun-A Lim(givesuna@nate.com)

Received July 26, 2019

Revised August 20,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과 더불어 사회적인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2]. 또한 가 치관이 형성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기술을 익혀가는 생의 준비 기간으로서 구강관리는 어느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 이 시기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습관은 결과적으로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구강질환 예측인자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구 강병에 관한 정보와 실천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4]. 건강신 념은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이해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영역 에서 여러 평가항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5], 건 강신념 모형을 구강병 예방에 적용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예방하는 등 그에 따른 모든 행위와 요 인을 설명하는 것이 구강건강신념모형이다[6]. 건강신념 모 형을 감수성, 심각성, 중요성, 유익성, 장애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수성과 심각성이 높을 경우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 다고 하였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에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행위에 관련된 모든 요인 을 말한다[7].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강건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구강병 예방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 상시키며 구강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8,9].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 건행위와의 관련 연구[1,9-11]와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에 관한 연구[12-14] 또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구강건강신 념과 구강건강인지-지각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S대학에서 핵심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 성화 융복합 수업으로 5개학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티칭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강보건교육의 중요한 부분 을 교육하고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이론 및 실 습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공이 아닌 일반학과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신념의 변화 를 초래하고 생애주기별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구강관리에 지식과 태도의 변화 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생 때부터 구강건 강의 지식을 알고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지하며 구강건강관 리가 삶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학 생의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구강건강과 주관적 인지지각요 인의 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1.1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융합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건강신념정도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을 비교한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에 위치한 S대학교 특성화 융복합 과목 을 수강신청한 5개학과(뷰티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식품 영양학과, 재활보건관리학과, 치위생학과) 1,2학년을 대상으 로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 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직 접 서명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 준 $\alpha=0.05$, 효과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산 출하여 표본수는 17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216부(98.2%)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2.2.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 지 각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6문항,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건강지식은 박[15]이 사용했던 도구를 수정보완하였고, 정답에 1점을 부여하여 총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지식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관심, 구강건강상태는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지각 요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감수성 6문항, 심각성 6문항, 유익성 6 문항, 중요성 6문항, 장애성 6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Kegeles[16]가 제시한 모형을 기본으로 선행연구[1,6,9,10]를 참조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은 Likert 5점 척도인 도구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의 신념은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장애성의 경우 역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낮아질수록 구강건강의 신념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구강건강의 신념은 Chronbach's α 는 0.709 로 나타났다.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SPSS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è test 사후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요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216명 중 남자 25.9%, 여자 74.1%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1학년 57.9% 2학년 42.1%로 1학년이 많았다. 전공만족도에 서는 만족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은 하지 않는 경우 78.2%로 높았으며, 음주는 하는 경우 88.9%로 높았다. 스트레스는 보통이다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56(25.9)
	Female	160(74.1)
Grade	1	125(57.9)
	2	91(42.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19(55.1)
	Average	94(43.5)
	Dissatisfaction	3(1.4)
Smoking history	Yes	47(21.8)
	No	169(78.2)
Drinking	Yes	192(88.9)
	No	24(11.1)
Stress	Feel	81(37.5)
	Nomally	120(55.6)
	Do not feel	15(6.9)
Total		216(100.0)

3.2 구강건강신념 정도

구강건강신념 정도는 Table 2와 같이 총 2.99점이었다.

유익성 3.87점, 장애성 3.31점, 중요성 3.12점, 감수성 2.58 점 였으며, 심각성이 2.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Subjective level oral health beliefs

Unit : Mean±SD

Variable	Chronbach's α	M±SD
Susceptibility	0.796	2.58±0.74
Seriousness	0.794	2.08±0.69
Benefit	0.870	3.87±0.62
Salience	0.712	3.12±0.58
Barrier	0.764	3.31±0.74
Total	0.709	2.99±0.32

3.3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구강건강인지지각요인은 Table 3과 같다. 구강건강지식은 총점 14점에서 11.9점이었으며, 5점척도인 구강건강

중요성은 1.50점 구강건강관심은 2.36점, 구강건강상태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subjective awareness-perception factors for oral health

Unit : Mean±SD

Variable	N	M±SD
Oral health knowledge	216	11.9±1.48
Oral health importance	216	1.50±0.59
Oral health interest	216	2.36±0.68
Oral health status	216	2.67±0.72

3.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신념의 하위요인에서 감수성($p<0.01$)과 심각성($p<0.001$)은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의성은

성별($p<0.01$)과 전공만족도($p<0.05$)에서 중요성은 흡연($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sceptibility	Seriousness	Benefit	Saliency	Barrier
Gender	Male	2.49±0.93	2.08±0.80	3.68±0.89	3.03±0.75	3.40±0.90
	Female	2.61±0.66	2.08±0.66	3.93±0.48	3.14±0.51	3.28±0.68
	t or F (p-value*)	-1.026 (0.306)	0.012 (0.990)	-2.640 (0.009)	-1.279 (0.202)	1.045 (0.297)
Grade	1	2.59±0.73	2.03±0.66	3.83±0.558	3.05±0.54	3.34±0.78
	2	2.56±0.76	2.13±0.73	3.92±0.71	3.20±0.63	3.26±0.70
	t or F (p-value*)	0.225 (0.822)	-1.035 (0.302)	-1.109 (0.269)	-1.921 (0.056)	0.840 (0.40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2.53±0.76	2.02±0.71	3.93±0.66 ^a	3.18±0.56	3.35±0.71
	Average	2.63±0.72	2.14±0.67	3.82±0.55 ^{ab}	3.03±0.60	3.26±0.80
	Dissatisfaction	2.83±0.44	2.50±0.87	3.00±0.33 ^b	3.39±0.54	3.17±0.17
	t or F (p-value*)	0.625 (0.536)	1.333 (0.266)	3.918 (0.021)	1.997 (0.138)	1.977 (0.622)
Smoking history	Yes	2.53±0.76	2.03±0.67	3.62±0.80	2.95±0.68	3.26±0.83
	No	2.59±0.74	2.09±0.70	3.94±0.55	3.16±0.54	3.32±0.72
	t or F (p-value*)	-0.530 (0.597)	-0.496 (0.621)	-3.190 (0.002)	-2.268 (0.024)	-0.493 (0.623)
Drinking	Yes	2.57±0.73	2.08±0.68	3.88±0.60	3.12±0.58	3.30±0.74
	No	2.63±0.85	2.02±0.81	3.74±0.79	3.07±0.62	3.35±0.82
	t or F (p-value*)	-0.394 (0.694)	0.415 (0.679)	1.043 (0.298)	0.407 (0.684)	-0.285 (0.776)
Stress	Feel	2.74±0.80 ^a	2.25±0.73 ^a	3.87±0.63	3.17±0.62	3.21±0.81
	Normally	2.53±0.67 ^a	2.03±0.65 ^a	3.84±0.55	3.09±0.55	3.33±0.68
	Do not feel	2.03±0.70 ^b	1.49±0.43 ^b	4.11±0.99	3.06±0.64	3.58±0.86
	t or F (p-value*)	6.540 (0.002)	8.773 ((0.001)	1.305 (0.273)	0.573 (0.565)	1.717 (0.182)

*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

3.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은 Table 5와 같다. 구강건강지식은 성별($p<0.05$), 학년($p<0.01$), 전공만족도($p<0.01$), 흡연($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건강중요성은 스트레스($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관심은 성별($p<0.05$), 음주($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강건강관심은 스트레스($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The subjective awareness-percep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interest	Oral health status
Gender	Male	11.57±1.71	1.48±0.63	2.52±0.79	2.73±0.92
	Female	12.03±1.38	1.51±0.58	2.30±0.63	2.65±0.64
	t or F (p-value ^a)	-1.985 (0.048)	-0.261 (0.795)	2.078 (0.039)	0.733 (0.464)
Grade	1	11.66±1.37	1.50±0.63	2.42±0.66	2.70±0.70
	2	12.24±1.57	1.49±0.55	2.27±0.70	2.64±0.75
	t or F (p-value ^a)	-2.877 (0.004)	0.116 (0.908)	1.511 (0.132)	0.590 (0.55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1.92±1.49 ^a	1.45±0.56	2.32±0.69	2.66±0.76
	Average	11.97±1.42 ^a	1.56±0.61	2.38±0.67	2.67±0.66
	Dissatisfaction	9.33±1.53 ^b	1.67±1.15	3.00±0.00	3.00±1.00
	t or F (p-value ^a)	4.774 (0.009)	1.164 (0.314)	1.599 (0.205)	0.316 (0.729)
Smoking history	Yes	11.40±1.78	1.43±0.58	2.45±0.80	2.74±0.87
	No	12.05±1.36	1.52±0.60	2.33±0.64	2.65±0.67
	t or F (p-value ^a)	-2.669 (0.008)	-0.971 (0.333)	1.029 (0.305)	0.789 (0.431)
Drinking	Yes	11.90±1.46	1.49±0.60	2.40±0.67	2.70±0.70
	No	11.96±1.65	1.58±0.58	2.04±0.69	2.46±0.88
	t or F (p-value ^a)	-0.178 (0.859)	-0.728 (0.468)	2.431 (0.016)	1.540 (0.125)
Stress	Feel	11.85±1.70	1.42±0.61 ^a	2.32±0.70	2.77±0.83 ^a
	Normally	11.90±1.37	1.58±0.59 ^b	2.43±0.66	2.67±0.64 ^{ab}
	Do not feel	12.27±1.10	1.27±0.46 ^a	2.00±0.65	2.20±0.56 ^b
	t or F (p-value ^a)	0.497 (0.609)	3.133 (0.046)	2.824 (0.062)	4.010 (0.020)

^a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

3.6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구강건강신념은 구강건강지식(r=0.294, p<0.01)과 구강건강상태(r=0.406,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중요성(r=-0.137, p<0.01)과 구강건강관심(r=-0.179, p<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구강건강중요성과 구강건강관심(r=0.259,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belief and ora health subjective awareness-perception factors

	Oral health belief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interest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1				
Oral health knowledge	0.294**	1			
Oral health importance	-0.055	-0.137**	1		
Oral health interest	-0.127	-0.179**	0.259**	1	
Oral health status	0.406**	-0.103	0.081	0.098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4. 고안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신념과 행위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하다.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습관은 오랜시간 동안에 걸쳐 형성되어지므로 잘못된 습관이 고착하기 이전에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4]. 구강건강지식과 다양한 정보는 개인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념과 태도에 변화를 갖게 하여 구강병을 예방하며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15]. 이에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요인(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중요성, 구강건강관심,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가지고 구강건강행위를 할 수 있는 구강보건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은 총 2.99점으로 유의성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각성이 2.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박[1]과 임[10]의 연구결과와 비교적 유사하였고, 대체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결과들을 보였다. 연구대상자마다 구강건강신념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초기에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건강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지각요인에서 구강건강지식은 총점 14점에서 11.9점이었으며, 정과 윤[12]은 10.7점, 임[13]은 11.46점, 한 등[17]은 12.04점으로 대체적으로 구강건강지식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구강건강의 신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구강보건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건강지식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도 높다는 결과를 보였고[18],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지식이 구강건강행위에 낮은 실천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19].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구강보건캠페인과 홍보 및 교육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강건강중요성은 1.50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13,20]. 대다수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저작을 강조하였고, 올바른 저작을 위하여 구강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태도의 변화 등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강건강관심은 2.36점으로 임 [13]은 2.52점으로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정과 윤 [12]은 3.1점으로 본 연구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지식이 높아질 경우 관심도 증가한다는 결과로 보아 구강건강지식과 관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1,22]. 구강건강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지식

을 전달하고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므로 대상자의 지식태도행동의 변화를 갖게하는 등 동기부여와 다양한 구강보건교육매체의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건강상태는 2.67점으로 정과 윤[12]은 2.70점으로 유사하였지만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13,20]. 구강건강상태를 인식함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리라 여겨지며 관리를 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수성, 유익성, 중요성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10], 구체적인 이유에서는 감수성이 높을 경우 치과를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6], 유익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였으며,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심각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11]. 구강건강신념을 높힐 수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으로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신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은 구강건강지식은 성별에서 구강건강지식은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윤과 장[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년에서는 2학년이 구강건강지식은 높았으나 구강건강 중요성은 1학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 특성상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융복합 수업을 시행하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구강건강의 지식이 높았으며[24],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중요성이 높다고 하였다[13].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윤[24]와 박과 문[25]에서는 28.7% 였으나 본 연구는 11.1%로 다소 차이를 보여 대학생들의 음주는 대상자가 1,2학년이 점으로 보아 흡연에 비해 높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구강병의 예방과 먼저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지하고 구강내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올바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개개인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 등[14]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주관적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낄때 구강건강의 지식이 높다고 하였으며, 권과 이[11]는 구강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하였으며, 구강건강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을 경우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구강건강지식($r=0.294$,

$p<0.01$)과 구강건강상태($r=0.406$,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중요성($r=-0.137$, $p<0.01$)과 구강건강관심($r=-0.179$, $p<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구강건강중요성과 구강건강관심($r=0.259$,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 등[26]은 구강건강신념과 구강에 관한 행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개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지식은 행위에 대한 정확성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박[27]은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구강병 예방행위가 구강병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올바른 구강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을 수 있도록 구강건강인지각에 관련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G지역 S대학교 5개학과 1,2학년 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기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대학에서 융복합 수업을 통하여 대학생에게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향후 연구시에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강건강의 신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와 평생동안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 수강하는 학생들을 매년 학년이 달라지기에 끊임없이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이 올바른 구강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방법과 정기적인 치과내원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인지하고 노력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법을 적용시키며 구강건강에 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G지역 S대학 특성화 융복합 수강한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융복합 수업시간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강신념 정도는 총 2.99점으로 유의성 3.87점, 장애성 3.31점, 중요성 3.12점, 감수성 2.58점 였으며, 심각성이 2.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구강건강지식은 총점 14점에서 11.9점이었으며, 구강건강 중요성 1.50점 구강건강관심 2.36점, 구강건강상태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은 하위요인에서 감수성($p<0.01$)과 심각성($p<0.001$)은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의성은 성별($p<0.01$)과 전공만족도($p<0.05$)에서 중요성은 흡연($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요인은 구강건강지식은 성별($p<0.05$), 학년($p<0.01$), 전공만족도($p<0.01$), 흡연($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건강중요성은 스트레스($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관심은 성별($p<0.05$), 음주($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강건강관심은 스트레스($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구강건강신념은 구강건강지식($r=0.294$, $p<0.01$)과 구강건강상태($r=0.406$,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중요성($r=-0.137$, $p<0.01$)과 구강건강관심($r=-0.179$, $p<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구강건강중요성과 구강건강관심($r=0.259$,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의 변화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지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구강보건교육의 필요하며,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M. S. Park. (2011).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2), 107-119.
- [2] J. N. Lim & Y. R. Jung. (2013). Development proposal of oral health educational media based on the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2), 232-334.
- [3] H. R. Park & S. J. Moon. (2009). Survey on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and prevention

- behaviors of some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9(5), 485-490.
- [4] I. S. Park & H. J. Youn. (2013).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al health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7), 243-253.
- [5] S. M. Kim & H. S. Lee. (2015).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behavior of taxi driver in Jeollabuk-do.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5), 542-50. DOI : 10.17135/jdhs.2015.15.5.542
- [6] Y. B. Oh & H. S. Lee & S. N. Kim. (1994).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liefs.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18(1), 62-83.
- [7] H. S. Lee & G. S. Kim. (1999). Oral health behavior of economically activewomen in Chollabuck do republic of Korea:2. oral preventive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23(3), 287-299.
- [8] Y. J. Choi & J. S. Park. (2016).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n oral disease prevention and quality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113-122. DOI : 10.12811/kshsm.2016.10.3.113.
- [9] B. R. Lee & Y. H. Lee. (2017).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3), 431-440. DOI : 10.13065/jksdh.2017.17.03.431
- [10] S. A. Lim. (2018). Convergent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37-43. DOI : 10.22156/CS4SMB.2018.8.5.037
- [11] S. J. Kwon & E. J. Lee. (2013).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n use of dental service of studets of health and medical department of universiti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3), 83-93.
- [12] E. J. Jung & H. J. Youn. (2010).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wareness-perception factors of dental hygiene and nonhelath-related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0(5), 777-788.
- [13] S. A. Lim. (2017). Convergence factors of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on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167-175. DOI : 10.15207/JKCS.2017.8.11.167
- [14] A. R. Shin, J. H. Kim, D. O. Park, Y. H. Choi & K. B. Song. (2016).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knowledge and behavior of oral health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lath Education and Promotion*, 33(1), 41-48. DOI : 10.14367/kjhep.2016.33.1.41
- [15] S. H. Park. (2009). *Comparison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korea*.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16] S. S. Kegeles. (1963). Why people seek dental care: A test of a conceptual formulation. *Journal of Health Hum Behav*, 4, 166-73.
- [17] Y. J. Han, M. A. Han, S. Y. Ryu & S. W. Choi. (2015). Oral health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public health majoring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3), 487-495. DOI : 10.13065/jksdh.2015.15.03.487
- [18] S. J. Lee & J. H. Ja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of periodontal disease and dental health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2(4), 817-825.
- [19] H. R. Kim, D. Y. Kim & D. H. Moon. (2012). Comparison of knowledge, cognition and practice level on oral health care of the clients visiting dental clinic in pusan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2(4), 647-654.
- [20] S. A. Lim, A. H. Song & M. S. Lee. (2012). A study on oral health awareness-recognition factors and ora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social workers engaged in child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1119-1127.
- [21] K. H. Kim, C. H. Han, J. H. Kwon & S. K. Lee. (2001). The related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aegu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2), 65-82.
- [22] M. G. Ji. (2008).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8(4), 165-180.
- [23] S. U. Yoon & S. J. Jang. (2016). Co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a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97-104.

DOI : 10.15207/JKCS.2016.7.1.097

- [24] H. S. Yoon, Y. Y. Nam, H. A. Ryu, H. J. Kim, M. K. Lee & J. H. Lee. (2013). A stud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distr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 107-115.
- [25] H. R. Park & S. J. Moon. (2013).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00-310.
- [26] M. S. Kong, H. S. Lee & S. N. Kim. (1994).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dental health knowledge level, attitude toward dentist and dent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Korean Acad Dent Health*, 18(1), 84-94.
- [27] H. M. Park. (2016). Effect of oral health belief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oral health behavior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gn adolesc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2), 133-144.
DOI : 10.12811/kshsm.2016.10.2.133

임 선 아 (Sun-A Lim)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05년 3월 ~ 2010년 2월 : 전남 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예방, 보건관리 융합
- E-Mail : givesuna@nate.com